

# 한국 축구, 내일 쿠웨이트전 ‘축제의 장’ 으로

## 서울월드컵서 3차 예선 최종전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WE 대한’ 카드섹션·세리머니도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다가오는 쿠웨이트전이 축제의 장으로 펼쳐진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이라크 원정에서 값진 승리를 거두며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행을 조기 확정지었다. 대한축구협회는 본선 확정 후 치르는 첫 홈 경기인 쿠웨이트전에서 다양한 이벤트로 ‘11회 연속 본선행’의 대업을 자축할 예정이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은 10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쿠웨이트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조별리그 B조 최종 10차전 홈 경기를 치른다.

한국은 앞서 지난 6일(한국시간) 이라크 바스라 국제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아 최종예선 B조 9차전에서 후반 18분 김진규(전북현대), 후반 32분 오현규(헝크)의 연속골로 이라크에 2-0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한국은 B조 최소 2위를 확보하며 11회 연속(1986, 1990, 1994, 1998, 2002, 2006, 2010, 2014, 2018, 2022, 2026)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게 됐고, 통산 12번째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11회 연속 본선 진출은 ‘세계 6위’에 해당하는 대기록이다.

역대 최다인 5차례(1958, 1962, 1970, 1994, 2002년)나 세계 축구 정상에 오른 ‘삼바 축구’ 브라질이 1930년 열린 제1회 우루과이 대회부터 직전 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 본선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22회 연속 출전해 압도적인 이 부문 1위다.

브라질은 현재 진행 중인 북중미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도 10개 팀 중 4위를 달리며 6위까지 주어지는 본선행에 가까워진 상황이다.

이어 월드컵 4회(1954, 1974, 1990, 2014년) 우승에 빛나는 ‘전차 군단’ 독일이 옛 서독 시절을 포함해 1954년 스위스 대회부터 올해 카타르 대회까지 18회 연속 본선에 올랐고, 이제 19회로 기록 연장에 도전 중이다.

카타르 월드컵 우승국이자 현재 FIFA 랭킹 1위인 아르헨티나가 이미 북중미행을 확정하며 연속 출전 기록을 14회로 늘려 이탈리아(1962~2014년 연속 진출)와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한국의 김진규가 지난 6일(한국시간) 이라크 바스라 국제경기장에서 열린 이라크와의 200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서 선제골을 터뜨린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정상에 올랐던 ‘무적함대’ 스페인이 1978년 아르헨티나 대회부터 2022년 카타르 대회까지 12회 연속 출전으로 5위이며, 북중미까지 본선행에 성공하면 13회가 된다.

월드컵에서 우승한 이런 경쟁한 나라들의 바로 뒤에 한국이 6위에 자리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축구의 월드컵 본선 진출을 축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은 전 세계 6개국만이 달성한 성과이자 아시아 최초의 쾌거”라며 “19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본선 무대를 밟게 된 우리 대표선수들이 참으로 자랑스롭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는 10일 쿠웨이트와의 최종전을 월드컵 본선 진출을 축하하는 축

제의 장으로 운영하겠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응원석인 ‘레드존’ 1층에서는 카드섹션이 펼쳐진다.

국가대표팀 응원단 붉은악마는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업적을 달성한 위대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라는 의미를 담아 ‘WE 대한’이라는 문구의 카드섹션을 준비했다.

선수단과 팬들이 모두 하나가 돼 이룬 위대한 성과라는 뜻도 담겨있다.

카드섹션 외에도 붉은악마가 주도하는 전 관중 응원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선수단 입장 직전 붉은악마의 트럼펫 연주에 따라 전 관중이 응원가 ‘고 웨스트’(Go West)를 함께 부르며 양 팀 선수단을 맞이할 예정이다.

경기 종료 후에는 인기 일렉트로닉 밴드이자 온라인 축구게임 BGM으로 축구 팬들에게도 친숙한 ‘글렌체크’(Glen Check)’의 축하공연이 열린다.

대표팀 선수들은 그라운드로 재입장해 주요 선수들이 월드컵 본선 진출 소감을 전한 뒤 경기장을 돌며 관중과 소통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월드컵경기장 북서측 중앙광장에서는 팬 체험형 공간 ‘KFA 플레이그라운드’가 운영된다.

키오프 2시간 전부터는 플레이그라운드와 경기장 내부 전광판을 연결하는 이원 생중계 방식의 ‘백호 라이브 챌린지’가 진행된다.

축구대표팀은 쿠웨이트와 최종전 승리로 ‘유종의 미’를 고두겠다는 각오다.

한국은 이번 쿠웨이트전에서 비기거나 승리하면 조 선두를 유지한다.

하지만 한국이 쿠웨이트에 패하고 요르단이나 이라크와 홈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한국은 2위로 내려앉는다. 승점이 같을 때 따지는 골득실에서 한국과 요르단은 모두 +9골을 기록 중이다.

한국은 쿠웨이트와의 5차전 원정 경기에서 오세훈(마치다)의 선제골과 손흥민(토트넘)의 페널티킥 추가골, 그리고 배준호(스토크시티)의 쐐기골로 3-1 승리를 거둔 바 있다.

또 상대 전적에서도 한국이 최근 5연승을 포함해 13승 4부 8패로 앞서고,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 한국은 23위로 쿠웨이트(134위)보다 111계단이나 높다.

한국이 쿠웨이트와 3차 예선 최종전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방심해선 안된다.

이번 쿠웨이트전에서도 아직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손흥민(토트넘)은 출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손흥민 자리에 배준호(스토크시티), 양민혁(셀틱), 전진우(전북) 등 젊은 선수들이 나설 것으로 보여 이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 광주시청 박승우, 창원장애인사격월드컵 단체전 3관왕

R4·R5·R9…개인전 R4·R5 銀 2개  
세계선수권·亞 게임 M.Q.S 확보

광주광역시청 장애인사격팀 박승우가 ‘2025 창원장애인사격월드컵대회’에서 단체전 3관왕에 오르며 금빛 활약을 펼쳤다.

박승우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R4(공기총 입사)·R5(공기총 복사)·R9(화약총 복사) 종목 단체전에서 모두 금메달을 차지했다. 또 R4와 R9 개인전에서는 각각 은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승우는 지난달 31일 열린 R4 단체전

에서 서훈태(경기도장애인체육회), 이철재(경기도장애인사격연맹)와 함께 1890.5점을 기록, 프랑스(1888.4점)를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개인전에서는 252.7점으로 은메달을 추가했다.

지난 3일 열린 R9 단체전에서는 1852.9점으로 프랑스를 0.5점 차로 누르며 또 하나의 금메달을 보냈다. 박승우는 마지막 6시리즈에서 104.1점을 기록해 승부를 결정지으며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개인전에서는 249.2점으로 러시아 선수에 0.6점 뒤져 은메달을 추가했다.

대회 마지막 날인 5일 열린 R5 단체전에서는 1914.3점으로 한국 신기록을 경

신, 단체전 3관왕을 완성했다.

박승우와 함께 같은 대회에 참가한 박동안과 임주현(이상 광주광역시청)도 R4·R5·R9 전 종목에서 세계선수권·아시안게임 M.Q.S(최소자격기준)를 충족하며 내년 국제대회 출전 기반을 마련했다.

박승우는 “4월 연맹회장기 4관왕, 5월 직지배 3관왕에 이어 월드컵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 기쁘다”며 “내년 세계선수권과 아시안게임에서 광주 선수단과 함께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현성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지난 4~5일 창원을 찾아 선수단을 격려하며 “선수단이 훈련에만 집중하는 환경조성과 각자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광주광역시청 장애인사격팀 박동안(아랫줄 왼쪽부터)과 박승우, 임주현이 지난 5일 창원국제사격장에서 끝난 ‘2025 창원장애인사격월드컵대회’에서 우수 성적을 거둔 뒤 김현성(윗줄 세 번째)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등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 제공

있도록 광주시와 함께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 13개, 은 10개, 동 9개 등 총 32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4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최동환 기자